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 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니라
(골로새서 3:12)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겨울 단기선교

영적 겨울의 땅에 뿌릴 복음의 씨앗 준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미얀마 등 6개국에 60명 파송 예정



▲ 지난 여름 방글라데시에서 실시했던 단기선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

지난 여름 해외 여러 나라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씨앗들은 새들이 쪼아 먹었음직도 모른다. 또 어떤 씨앗들은 뿌리도 채 내리지 못한 채 파가운 햇볕에 말라버렸을 것이다. 또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막혀 제대로 싹을 내지 못한 씨앗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적 황무지처럼 보이는 땅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옥토가 틀림없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다. 지난 여름에 향해 떠나는 복음의 씨앗들은 지금 그 땅 어디에선가 분별된 자라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땅들로 다시 향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역사들을 확인하고 다시금 그 능력의 손에 맡겨지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수단과 인도,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중에서 가나안 땅 미리라고 향했던 두 정탐꾼의 마음으로 미리마를 향해 떠나는 지체들도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루어실 일들을 미리 보기 위해 가는 것이다.

순수한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지난 여름에 있었던 단기선교는 사뭇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서 상당히 벗어났다. 기존 단기선교의 상식은 대체로 현지 선교사들을 돕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치밀한 현지 답사와 선교 전략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인간적인 면에서보다 먼저 거의 '무차별'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 몇 마디 안되는 현지어로 현지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한 지난 여름의 선교는 기존의 방식과는 어울리기 어려운 모습이었

다. 더구나 경제난의 와중에서 이루어진 막대한 재정투자는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젊은이들을 보았다. 그들의 순수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의 인도에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 모든 선입견과 현실과 인간적인 정서를 넘어서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서 시작한 것이다.

다시금 그 땅들로

금번에 확정된 단기선교팀들은 수단(98. 12. 20-28), 수리남(99. 1-2월 중), 미얀마(99. 1-2월 중), 인도(99. 1. 9-20), 방글라데시(99. 1. 16-26), 그리고 스리랑카(99. 1. 27-2. 6) 등 6개국을 향한다. 성도들은 이들을 통해서 전해질 복음의 씨앗들이 옥토에 효과적으로 뿌려져서 영적 겨울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제 기도의 불씨들을 모아야 하겠다.

교역자 소식

그동안 9교구 교역자로 섬겼던 박희자 전도사가 개인적인 사정(결혼)으로 10월 20일부로 사임한다. 그교구 박도철 강도사는 10월 7일부로 비서로 인사발령되었다. 한편 10월 13일 동서울노회를 통해 이준경 강도사와 박도철 강도사는 목사로, 박민기 전도사와 열연인 전도사는 강도사로 각각 임직 및 인허를 받는다. 특별히 충현의 가족들이 이들이 말씀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98년도 겨울 단기선교 단원 모집

1. 지원 자격

- 1) 충현교회 세례교인 중 단기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중인 분
- 2) 단기선교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3) '98년도 여름단기선교 계획서' 켜나, 나이저리아, 우간다 팀원으로 선발된 분
- 4) 선교연구원 수료 혹은 재학중인 분
- 5) 자비량으로 참가할 분

2. 선발 방법

지원자격을 갖춘 지원자들 중 선교위원회 단기선교부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분을 선착순으로 선발함

3. 지원 서류

교구장이나 교육부서장의 추천서, 이력서, 사진 2매

4. 지원 기간

1998년 10월 25일까지

5. 기타 사항

- 1) 단기선교팀원으로 선발된 분들에게는 여비와 사역비 일부를 지원함 (기타 비용은 개인부담)
- 2) 선발된 분들은 선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선교훈련을 받아야 함

생명을 건지는 가을

6교구 초청전도집회

10월 17일 오후5시 만나홀

6교구는 지난 수개월간 기도로 계획하며 준비해온 초청전도집회를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만나홀에서 가진다. 이를 위해 6교구 식구들은 각 구역별, 전도회별로 전도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랑의 섬김을 다하면서 기도에 힘써왔다. 특히 충현 성도의 가족이나 친구, 친척 중 남아 있는 불신자, 동족만 하고 출석하지 않는 잃은 양, 교회의 예배와 섬김에 적극적이지 못한 성도들을 적극 권고하여 참여케 함으로 그야말로 6교구 가족들 전부가 참여하는 전교찬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6교구에서는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의 지원을 부탁하고 있다.

안수집사회
부부 산상기도회

안수집사회는 10월 17일(토) 부부 산상기도회를 실시한다. 이 산상기도회를 통해서 안수집사 부부들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말씀과 교회에 대한 성실한 충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은총이 임하도록 성도들도 관심을 기울여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10년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에바다부
설립10주년 감사예배
오늘 낮 12시 교육관 109호

지난 1988년 10월에 설립된 에바다부(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부서)가 어느덧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오늘 낮 12시부터 진행되는 기념감사예배는 축하찬치와 더불어 10주년 기념 감사예배 순으로 진행된다. 10월 9일 금요집회 시에는 특별 수화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오늘 찬양예배에서는 특별찬양을 할 예정이다. 여전히 다수의 청각장애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에바다부가 주님의 손길에 의해 쓰임받는 복음의 나팔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더 큰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하겠다.

금주의 교구영성훈련

13일(화) 6교구
15일(목) 7교구
16일(금) 9교구



김 창 인 목사

예루살렘(유다)의 타락에 대한 책망

(이사야 29:9-16)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좋은 그릇을 그대로 두시고 나쁜 그릇은 깨뜨려 심판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이 잘못이면 상을 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1. 예루살렘이 영적 소경이 된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1) 영적 소경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영육이 잘 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입어 원수가 손을 대지 못하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소경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부르지 못하였으니 영적 병이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고 헌신할 마음이 생겼는데 예루살렘의 백성은 감사와 헌신이 없는 자리에까지 타락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만이 잘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후호도 없고 그저 자기들이 잘나고 수완이 좋아서라고 여기는 교만한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셋째, 전리의 교훈을 받지 않으므로 악마의 미혹에 빠져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소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10절)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순종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영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 마귀의 말만 듣게 되어 버렸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란 마귀인데 마귀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 소경자들을 바쳐줬습니다.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전리의 교훈을 들으라는 마음조차 없었고 그 결과로 악마의 미혹에 빠져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2)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경을 듣고 다니면서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지자라 그러므로 모든 목사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10, 11절)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성경책이 없어서 소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오경이 있었으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11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기는 하였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지 영적 체험이 없었습니다. 유식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무슨 신앙의 체험이 있었습니까.

셋째로,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12절)

성령의 감동으로라야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하여 소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무식한 자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소경이 된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백성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교인들이 참된 교역자는 편박하고 거짓 교역자는 대접하였습니다. 뒤바뀌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가 선지자의 말이 듣기 싫다고 그를 톰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은혜를 많이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예배에게서 끌고 가 칼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참으로 위대하였으나 그를 성전 뜰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도 소경이요 지도를 받은 백성도 소경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에 속아서 진실을 죽이고 있었으므로 슬프고(1절) 놀라운 일(9절)이라고 하였습니다.

2. 예루살렘이 형식만 남은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소경이 되어 눈이 밝은 사람들이 바로 가리지는 것이 듣기 싫다고 돌로 때려 죽이고 톰으로 쳐 죽이고 목을 쳐 죽이는 것을 하는 소경들에게 남은 것은 외식뿐입니다.

(1)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13절)

첫째로, 외식이란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고아원, 양로원 간판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고아를 팔아서 제 주머니를 채우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팔아서 제 배를 채운다면 도둑놈도 상도적놈입니다. 약자의 등가죽 벗기는 가장 무서운 도둑놈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과 백성이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사람 앞에서만 인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땅에는 안타깝게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명부에 오른다고 인정을 될 수 있습니다. “이교 회에 나가십니까?” “총련교회에 출석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럼요. 벌써 받았습다.” “총련교회의 교인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이름이 있는지는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돈이 제일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 권세의 앞잡이입니다. 입으로는 생명을 사랑하지만 행실로는 생명을 죽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 속성이 가득차 있고 세심 향락에 젖어 있고 생활로는 하나님의 원수와 대항하여 진실한 선지자를 괴롭히는 외식입니다.

(2) 외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앞세우기 때문에 외식을 합니다. “...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13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앞설 때에 외식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어기고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준 교훈을 가지고 성경을 대신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둘째로, 미련하기 때문에 외식을 합니다. “와! 일흔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같이 숨기려는 자여 그 일을 여두운 대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라 하니 너희의 배려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여져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여져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빚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였느냐”(15, 16절)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를 여져 한 덩어리의 진흙이 제 마음대로 주무는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사람을 속이듯이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총명이지만 결코 취급하지 않으리 외식을 합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배우고, 순종하여 지키고, 헌신하기를 원하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는 지도자이거나 교인이거나 그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총련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므로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둘째로,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세례인,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는 간판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내 딸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효자 효녀가 될 마음을 가져야 외식하지 않는 참된 신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효자 교역자가 될 마음은 없고 간신히 밥벌이나 하려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니 영적으로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효자 신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외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악마에게 속아 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녀로서 살아야 사랑합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좋은 그릇을 그대로 두시고 나쁜 그릇은 깨뜨려 심판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이 잘못이면 상을 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



김성관 목사

우리의 초점은 (디모데후서 3:16-17; 요한복음 5:39)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경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남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과 예수님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한
게, 그리고 자세히 증거합니다(요 5:39).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
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
입니다. 만일에 성경이 없었더라면 사
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실어지는 계시
를 망각하고 왜곡시키고 심지어 없애버
리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
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시를 천하 만민을 위해 보존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적인 기능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끄는 지혜
가 있게 합니다(딤후 3:15). 이 말씀에
따르면 성경과 그 영감성이 우리를 구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
도와 그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
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깊이로 진리
요 생명의인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입니다.

교회의 왜곡된 초점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의 강조점을 가
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믿음의 측면
을, 어떤 교회는 특정한 성경적 원리
들을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름의
한 가지 초점을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
이긴 불행하게도 진정한 한 가지 초점으
로 모든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강조합니다. 그들은 성
경 전체를 보지 않고 몇몇 성경 구절만
한 관심을 둡니다. 이러한 참된 초점을
잃어버리는 변질의 위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들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행방
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몰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질투하여 죽어
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매 조급하며 자고하며 패락
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
게 내가 배가 돌아서라.”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무엇을 하고 무었
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 행동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란 바울이 디모데에

게 이 편지를 쓴 시기와 예수님의 제림
사이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결핍으로 인
해 생긴 틈새를 타고 이와 같은 특징들
이 교회 안에도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몇가지 현상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
다. 어떤 교회들은 좋은 목사님을 찾지
않고 전문 면접인을 고용합니다. 진짜
처럼 보이는 허의 선교 보고서를 잘 작
성할 수 있는 목사를 원합니다. 특정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잘 다듬어서 자기
교회의 이미지를 높여 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길 원합니다. 세속 책과 영화를 위
해 최신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을 개발
하고 실행합니다. 가능한 한 다른 곳에
서 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
요를 채워 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합니다. 서로 이러한 사람 중심의 프로
그램들은 교회를 성장시키지도 못습니
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었습
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지침

성경대신 사람들의 필요가 결정하는
교회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성경을 무
시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유향 음악, 화
려한 의회, 아름다운 장식, 다양한 프로
그램과 활동들, 매력있는 교회학교, 이
용하기 편리한 신식 등에 초점을 맞춘
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성공
적인 교회 성장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
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쑤
을 통해 성경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
람의 영감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의심스
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관심
을 둔 사람들이 그 정신을 염려하면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성경을 불태우고 권
면합니다. 현대인은 평범하게 성경만
믿는 교회는 제가 없고 싶어합니
다. 그러나 세상의 진노도와는 관계없
이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지침서입
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교에
서 선포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
니다.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법과 전통
을 무너뜨리고, 성경 전체의 진리를 망
각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를 흔들려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교회는 예수님께 초점을 둔 교회

충현교회는 최근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

게 성장했습니까? 소그룹사역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결속력이 더 강해졌습
니까? 교회의 환경과 시설이 더 좋아졌
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더 아름다웠
습니까? 교회학교의 교재가 더 새로워
졌습니까?

우리의 참된 초점은 무엇입니까? 정
칙적 기교나 시장원리로는 교회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듯한 교회 활동에 몰두하고 있지만 예
수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습
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미적 감각이 탁월
한 교회도 아니고, 세계 최고 규모도의 교
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
을 두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
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
씀에 주의해 보십시오. 성경의 올바른
사목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
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딤후 3:17). 바
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온
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것은 사람
의 힘없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씀은 성경의 감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
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솔직해집니다. 만일에 교회가 사람들
을 즐겁게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면 그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디모데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
진 싫어한 건데, 또 무엇을 잃고도 실
패했을까요, 진리는 말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
를 하나로 묶으신 은총이 진리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받으
실 만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 주어
지는 능력을 힘입어 정경과 기쁨과 이
웃과 더불어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
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
다. 충현교회는 성숙신신 예수 그리스
도의 입재, 곧 하나님의 말씀에 굳지
한 초점을 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바로 지금, 우리의 일과 삶
가운데 하십니다. 말씀 안에 정의와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초점이 흐려
져서 자신만 돌아보는 교회들이 많습니
다. 그들은 자기들 몸집을 키우는 것을
그토록 크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
다. 그러나 우리의 덧없는 근심들은 우
리의 말이 진정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만
에 익숙합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쉽게
초점을 잃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
게 보석과 같은 말씀을 버립니다. 역
사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
을 위해 결집해 왔습니다. 초점을 버리
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이익
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초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시대의 다른
일들을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
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목사나 교사에게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
이 죄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분명히 말
씀합니다. 성경님은 단지 성경을 소
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한 생
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숨기시
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마
11:25-27).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올바
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
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경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하지만은 않
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남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
의 이익을 탐하는 요즘 같은 때에 이러
한 기도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
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는 최선의 대담을 찾을 수 있습니
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초점을 지
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
리를 안내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

선교현장 이야기

나는 약하나 내 주는 강하시다

- '선교사 자녀 교육' 교사로 방글라데시에 간 이종원 형제의 기도편지 -



△ 가운데 안경 쓴 분이 이종원 형제

군생활을 마친 후, 얼마간의 짧은 준비였지만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덕분에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방글라데시로 10일간의 단기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10일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이었고, 문화도 잘 모르는 상태여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10일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 한지 모를 안타까움이 제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선교사 자녀 교육(MK)'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교사로서의 초심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고 흘려버렸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방글라데시로 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의 자녀를 맡아 사역하는 것과 여기 한국에 남아 제자훈련을 받으며, 공부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여러 방법으로 제게 싸인을 주셨지만,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던 저는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내린 결정
더욱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은혜의 싸인을 의심하다 지난 9월 7일 '파송의 노래'를 듣다가 드디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더욱 감히 있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며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9월 29일 출국하게 됩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로 가서 내년 2월까지 현지인 전도 사역과 함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이들을 전담하며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대상 연령은 초등학교에서 중학 생까지이고 이들에게 교과과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생활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의 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집총후유와 갱지 스강의 범람으로 인한 델의 유실로 국토의 2/3가 잠겼고, 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2의 사자(死者)인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는 저를 더욱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내 주는 강하시다 ..."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락처 : apostle98@hanmail.net

기도제목 :

1. 이 기간 동안 더욱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2. 주님과의 개인시간을 갖도록 장소와 시간이 허락되기를(삶의 중심이 되기를)
3.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4.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도록
5. 현지 기호와 문화, 음식에 잘 적응하도록(전염병이 심각함)
6. 강의와 강의 준비를 지혜롭게 하도록
7. 영어, বাংলা어 공부 열심히 하도록
8. 성서연구와 잘 연합하도록
9. 게으르지 않도록
10. 홍수 이후 전염병이 만연한 이때에 하나님의 공휩하심이 이곳에도 넘치도록

지금 선교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전도 행사

은혜 가운데 마쳐

7개국 95명이 참가, 33명이 새 신자로 등록함



△ 외국인근로자가 새신자로 등록하는 모습

국내외국인선교부와 17교구가 연합으로 주관하고 봉사위원회가 후원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전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다. 외국인 근로자 95명, 17교구 및 국내외국인선교부 봉사자 87명 등 총 182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10월 3일 오전 9시에 교와 갈릴리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성남에 위치한 왕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축구, 족구, 볼링과 각종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총원 기도원으로 강소를 옮겨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시간

을 가졌다. 3일 낮 행사와 저녁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날 기도원에서 잠을 잔 후 4일 주일 집회에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몽골 11명, 방글라데시 9명, 스리랑카 30명, 인도 7명, 인도네시아 5명, 파키스탄 1명, 중국 32명 등 총 95명의 외국인들이 참가했는데 이 중 기존에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신자는 58명이었으며 37명은 평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나온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모슬렘이며 힌두교도와 불교도 혹은 무신론자도 섞여 있다. 이틀남 주일 집회에는 79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33명이 국내외국인선교부에 새로 등록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국인선교부와 교구가 연합해 전도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선례를 남겼으며 운동경기를 통한 초청 전도는 물론 음악과 문화행사를 통한 전도행사의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

매년 추석이나 설날 휴일 때마다 한국 땅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어 술과 노래 등으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교회에서 이들을 위한 특별 행사를 마련해 줌으로써 향후 연휴 기간에도 비슷한 유형의 전도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또 다른 의미이다.

국내외국인선교부 초청 행사를 마치고 - 17교구 제공

까무잡잡한 얼굴로 티없이 맑은 눈동자.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힘없이 보이는 그들의 어깨 위에 내 손을 얹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님이 내 그들. 한국에 온 지 아직 일년여 채 되지 않은 그

의 입에서 우리말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은 그동안 선교위원회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 얼마나 이들을 위하여 수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 주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교향에 가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안에서 형제애(愛)를 나누고, 감사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우리들의 제2의 고향. 이번 초청 행사에서 그들도 예수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면 그들 역시 고향을 맛보았으리라.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과 운동장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뛰며 겨루었던 경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몸과 마음으로 느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넓기는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일로 전파되리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 외국인 근로자들이 총원 기도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감사의 계절'

10월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소박한 마음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합시다.



이제 '나' 보다 '우리'를 생각하라

최형 훈(72동기)

멀지 않은 과거 몇해 전부터, 생활하면서 힘들어
하고 갈피를 못 잡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
씀이 있다. "너는 너무 '나'를 강조한다"라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이유
란다. 인정할 수 없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비단 자
식을 알고, 제대로 보는 우리네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을 거
라는 생각이어서 아니다. 나 스스로
도 깨닫지 못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말
씀이었지만, 주변의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
해 서서히 궁지에 몰리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
이다. 장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연약함, 언제부터인가 잃
어버린 자신감 등이 나를 궁지로 몰아 넣는다.

누구나 자신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상태나 조건에 대
해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
려고 '최선'을 다한다.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사람이 못할 것이 없다'는 인본주의식 사상으로
무장한 채 바쁘게 생을 살아가다. 마치 그렇게 살아가
는 것이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인 것처럼 또 다른 물질
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세상 그 무리들의
틀바구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절실
한 마음이 생긴다.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듯한 불
안감 때문이며, 나의 생활 방식에도 보다 크고 유일한
가치를 위해 작고 한시적인 습관들을 돌아보려 했기 때
문이다. 그런 절실함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서 생긴 것이다. 나 역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

지라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싫어하고, 만약
그러한 모습이 노출되었을 때는 심한 좌절감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되도록 빈틈을 보이지 않
기 위해 애쓴다. 또한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을 보면 한
없이 부럽게 느껴지고, 약한 사람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이 고개를 돌리곤 한다. 나

'우리'에게 관심 돌릴 때 비로소 해결되는 '나'의 문제

의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상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며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이리석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
한다. 이를 때면 허탈하고, 몸시도 후회가
막심해진다. 이렇듯 모든 것에 완벽하고, 부
족함 없는 것을 기대하는 심리는, 어쩌면 하나님
이 베푸신 충고인 능력에 대한 '이리석은 도전'이
라 생각된다.

이러한 나의 상태이다 보니 그동안 '나'를 본의 아
니게 강조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주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생각된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
람들에게 조금씩 열린 자이를 가지는 것이 좋은 줄을
안다.

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어머니의 말씀은 "이
제는 '우리'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결국 어머니의 말
씀을 처음부터 알아듣지 못하고, 교만한 고집에 눈이
어두워졌다가 궁지에 몰려서야 비로소 눈을 뜬 어리석
음을 깨달은 것이다. 나의 문제는 '우리'에게 관심을
돌릴 때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
하라는 어머니 말씀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새
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발견

김 지 은(70동기)

돌이켜 지난 98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10개월은
신앙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어릴 적부
터 믿어와 버릇처럼 굳어버린 신앙이 29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서 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
다. 그동안 다른 이들과도 교회 다닌 햇수에 연연해 하
며 헛헛했던 고개, 자신 있던 목소리와 당당함이 지나

성숙의 그날 기다하며 주님께 감사

쳐 도도했던 어깨, 주님 이전에 눈에 보였던 것이 사람
에 대한 인정이었음을 시인한다. 그러곤 그 모습이 주
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것이라 나를 포강했다.

하지만 회회를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길지
은이 존재했다. 불평, 불만, 짜증에 모난 부분이 해를
거들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루는 동생이 "언
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라도 하면 안돼?" 했다.
그때 알았다. 내가 두 얼굴의 모습인 것을.

주중에 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주님은 올해 1월부터
내 성품을 고쳐나가셨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 하나님의 사랑. 사실 나를 인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기
란 고통 그 자체였다. 그러나 주님은 모난 내 성품을
주님께 맡기기 원하셨고 이제는 나를 인정한다. 아직
맛을 먹는 미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조만간 여러
영양소를 섭취하고 방금 웃으며 감사할 날을 또한 기
대한다.

막상 날짜를 잡게 되니까 참으로 막막합니다. 혼자 있
을 때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난 것
도 없으면서 뭐 그리 잘난 척을 하려고 애를 쓰는지 안
스름기까지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동생과 함께 고향에 내려갔
습니다. 고향의 자그마한 교회는 100주년
을 맞이합니다. 일제, 그 압박 속에서
고통을 견뎌내며 신앙을 지키셨던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100주년
기념이라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
는 소리는 분주함을 바라보며
그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파
연 무엇을 물려 주고 싶어 하셨
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이었
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선 기도. 할아버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모습이 손
에 잡힐 듯 합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동생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
어요. 고향에 돌아와 할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좋습디다. 이것이 가장 희귀에
는 진 자그마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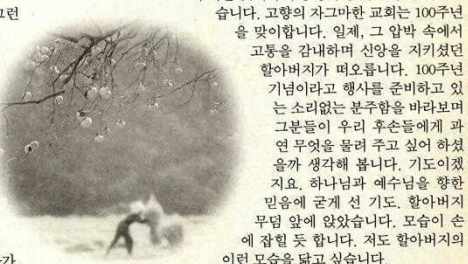
감사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전 난감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솔직히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 돌아
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 생활이 맛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29살입니다. 네, 그리고 적도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입밖에 절
대 내지 않는,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
인 노처녀입니다. 남들 앞에서
당당하려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는 어쩔 수 없이 어깨에 힘이 빠
져 버리는, 얼굴도 지극히 아니
너무도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
다.

저에게는 예쁜 여동생이 있습
니다. 물론 여동생은 애인이 있지
요. 예쁘니까... 때로는 긴 속눈썹
에 새까만 눈동자를 가진 동생의 눈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눈이 작은 메디가
생존률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29살이 되어서 어린 동생의 눈이나 부러워한
다고 웃고 계시겠지요? 맞아요. 제가 지금 동생의 환한
이야기를 듣고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생을 먼
저 결혼시켜도 괜찮을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노 처녀
여리고
그리고
동생
감사

순교하신 할아버지 신앙 통해
감사의 마음 회복





'에바다'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한 세월

임 태 주(전도사, 6교구 부지도)

에바다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식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 영혼을 사할라는 마음으로 소중하기를 결심하고 마음씨 좋은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에바다부를 당당했습니다. 아동반 5명, 성인반 6명, 그리고 몇 명의 교사를 포함하여 19명이 시작했던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장애인들이 정상인 사이에서 예뻐지고 교제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자신들도 꺼리고, 성도들도 꺼리며 특히 집안식구들이 더욱 부끄럽게 생각하여 감추기도

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다'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충현교회에 나타나 에바다부를 통한 주일 학교와 3부 수와 통역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2층에서 수화로 예배드리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점점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꾼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서로에게 신경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로미며 깨우치는 노력은 정말 눈물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매주 학생들을 가정으로 방문하여 부모들을 깨우치고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정성으로 차츰 학생반과 성인반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바다부를 거쳐간 청각장애인들도 많았습니다. 토요일마다 선교회와 애화학교 등 동아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

을 태워오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고, 장로님 가정에서 학생들을 매주 태워오기도 하였습니다. 집사님 중에는 직접 삼성농아원에 매주 찾아가 태워 오므로 청각장애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은 분도 있었습니다. 교사님들 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월보로 24인승 버스를 헌납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초창기 수화교실의 어려움도 많았으나 허명호 집사님과 손기현 집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헌신적인 배려를 보내 주신 것을 잊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에바다부에서 자란 학생들이 교사로, 지도자로 봉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에바다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날 총현 에바다부 출신들이 지복한에 있는 청각장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고사들의 기도에 부흥의 축복을 더하신 주님

40만 청각장애인의 영혼 구원 행진 계속 이어지길...

에베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에바다부를 볼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렘 33:2)이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고사들의 열심은 대단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수화와 그림으로 글씨를 써 가면서 성경을 가

고 동아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전도하여 데려오기도 하고 주일 오후에는 농아들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전도하여 에바다부를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주일에 선생님들은 오전 6시 30분이면 교회에서 얻은 봉고를 타고 나가서 애화학교와 삼성농아원 중심으로 학생들

목사 장립·강도사 인허를 앞두고서

충성의 언덕(忠愍)을 찾았던 한 재수생

이 준 경(강도사, 중동3부 지도)

한 재수생이 충성의 언덕(忠愍)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봉사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군에 들어가면 되는 재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재수생입니다. 저를 군생활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면 선교단체의 간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의 사역을 마무리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자연스럽게 목회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날을 이룰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는 전국일꾼을 키우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는 스스로 절로 배웁니다. "나는 얼마나 전국일꾼에 합당한 자인가?"

합당한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잘 섬김으로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또한 이끌어 있어서도 너무나 큰 부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됩니다. 참 목자의 깊은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깨끗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겨야 할 양무리를 내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양무리임을 꼭 기억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깨끗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먼저 주님을 만나라는 응성을 듣고

뜻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음성

박 조 철(강도사, 중동1부 지도)

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특별히 딸 넷을 연속으로 낳으시고 아들 갖기를 소원하시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리셨던 어머니의 기다림은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침술을 흘려 넘기신 부모님들께서 만나 제쳐 놓으시고 캐나다에서 이곳 서울까지 오시는 것을 보면 그분들의 기다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기다림 또한 간절했습니다. 특히 2년 전 강도사 고시에 떨어지자 남편의 격려를 잘 알고 있는 아내들은 생후 10주된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목사 고시는 한 번에 붙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계게도 역시 이 날은 오래 기다리던 마음 설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죄송스러운 마음과 자랑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과 당당한 마음, 무거운 마음과 가벼운 마음이 뒤엉키어 아주 묘한 기분 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바쁜 일정을 모두 놓고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다림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 속에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를 향해 달려

가라는 그 거룩한 음성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받을 그 어려움들과 그 가슴벅찬 기쁨들을.

제 목사 안수식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 중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기도원에서의 만남

염 현 일(전도사, 초동부 지도)

은 해 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지나온 길을 잠시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원까지도 주안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만지와 같은 저의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은 그 시간에도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들은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던 기도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지루한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주님은 저의 이러한 생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적 수련장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저를 책을 읽어 두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계속될수록 주님 앞에서 지워져 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원을 내러올 때에는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오늘날도 호흡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총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울러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은총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자국 따르는 심정으로

박 인 기(전도사, 에바다부 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불꽃의 나이에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할 때부터, 그리고 신학교 3년간의 하루하루가 내게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마음이었고 강도사 길은 앞은 더욱 그렇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은 얼마나 험할지 알 수 없다. 고린도후서 11장 16-33절의 바울의 수난 고백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린다. 하나님의 종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바울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죄인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고 이 믿음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일할 것이다.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키워 주신 충현교회에 감사하며, 에바다부 교사와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재들 소식 / 탐방

지재들 소식

영아부

새 친구들과 사귀고 싶어요

영아부에서는 새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원교회에 다니는 가족 중에 0세인 태아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아부는 가족인 엄마, 아빠, 아기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아기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편안함과 기쁨을 주고, 엄마, 아빠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아 우리의 자녀를 최고의 모습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송혜경 통신원)

신앙상담 : 한영준 전도사(552-8200)
집회시간 : 주일 오전 9시(1부), 11시(2부)

유아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깨끗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유아부는 오늘(10월 11일) 학부모님을 초청하여 '기독교 가정의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가집니다. 강사

는 미국에서 유아교육을 연구하시고 우리 교회 유아원 원감으로 수고하시는 민경애 집사님입니다. 협하고 오열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많이 참석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 2부예배 끝난 직후(공과공부시간)입니다. 꼭 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임미순 통신원)

유년부

친밀한 교제를 통한 영혼 구원

저희 유년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학원 전도를 나가요.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학동초등학교 전도팀을 소개할까 해요.

이경숙 선생님이 팀장으로 화, 금요일에는 개인적으로 전도하시고,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 함께 전도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선생님들이 궁금하시다구요? 김영기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김명화, 이영숙, 강현주, 황영림, 유도중, 안순복 선생님 등 이렇게 멋진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통해 이미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출·결석 관리 등 좋은 영혼을 찾는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유년부 선생님 모두가 하루 빨리 전도에 동참하여 학원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은혜 통신원)

초등부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으로 거둔 열매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를 '어린이 초창 전도 잔치' 기간으로 정해 놓고 그 동안 태산지 카드 작성, 전도카드 등을 이용하여 새 친구들을 전도 하기에 힘썼습니다. 또 역삼, 논현, 학동 초등학교 앞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애쓰신 덕분에 초창 전도 기간에 52명의 새 친구들이 교회에 나왔으며 초창 전도 잔치날인 9월 27일에는 16명의 새 친구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동안 뿌린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나온 친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끌어 주며 또한 그 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전도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알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2부

시아 그림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는 10월 31일(토)에는 중등부 연합에서 개최된 시와 찬양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참으로 슬프게 많은 하나님을 향한 중등부 친구들의 금궁증을 시와 그림으로 꾸며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등부 친구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리새산과 들은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여지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중등부 가족들의 가슴에 묻어 두었던 이야기들로 우리 곁에서 재신 주님을 다시 뵙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성애 통신원)

총원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청소년 연극축전 참가

10월1부터 15일까지 정동극장에서 열리는 제8회 '98 서울시 장애인청소년 연극축전'에 13명의 복지관 후원생들이 참가한다. 이를 위해 후원생들은 약 5개월 동안 꾸준한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였다. 연극 공연에 앞서 10월 오후 2시 30분에는 개막식과 함께 장애인들의 그림, 도예품 등 작품 전시회와 사물놀이, 특별연주, 합창 공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관에서는 12월 오후 3시와 6시 두 차례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탐방 / 핸드벨과이어

영혼을 물리는 아름다운 종소리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핸드벨과이어는 10년 동안 핸드벨의 모든 것을 총괄해온 대장 정경자 권사님과 대원들을 위해 늘 기도도 후원하는 부대장 김승욱 집사님, 현재 지휘를 맡고 있는 송재일 선생님이 대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핸드벨과이어 대원들의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계속해서 핸드벨과이어에 들어오는 초동학생부터 처음 핸드벨과이어가 만들어졌을 때의 대원, 청년1부의 회원이나 청년2부의 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 부서에서 대원들이 연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 있을 중등부의 시와 찬미의 밤이나 고등부 등의 행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원들의 나이가 달라 각각 부서의 시간에 맞추어 연습을 하다보니 중등부와 대학부는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고등부는 11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을 한다. 그런데 이 연습시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원들은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대로 와서 연습을 한다. 한 쪽은 예배를 위한 연습, 또 다른 한 쪽은 선배들과 함께하는 연습. 그래서 매주 일 분당 시종 다락방에서는 아름다운 벨소리가 울려 퍼진다.

핸드벨과이어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88년 6월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반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하였



맏고 청아한 찬미의 자리로 인도하는 복음의 메아리 순수한 벨소리처럼 우리 신앙도 맏고 순수해지길

다. 그래서 11월 첫 정기 연주회를 갖고 다음해 89년부터 2부예배의 헌금송을 하게 되었다. 그 후 94년부터는 월 1회 주일 저녁 찬양예배의 찬양만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약간 위축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오히려 마음 중심에서 우리나오는 핸드벨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98년 4월 19일부터 5

부예배의 헌금송을 맡게 되었다. 지금 5부예배의 헌금송은 대부분 대학부에 속한 대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핸드벨과이어는 우리나라의 핸드벨 협회와 국제협회가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핸드벨협회에서 주관하는 강습회와 정기 연주회에 참여한다. 그리고 국제대회에도 참가하였는데 9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대원들이 함께 참석하였고 96년에는 미국에서 열린 일부의 대원들만이 한국팀 대표로 참석하였다. 몇년 전에는 아름다운 벨소리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곡들을 연주하여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전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성도는 사무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핸드벨과이어에서는 12월초에 10주년 기념 행사로 가족 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송로, 듀엣, 차임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를 할 예정이다. 부디 많은 성도들이 이 연주회에 참석하여 핸드벨의 아름다운 소리를 다같이 느꼈으면 한다. 그리고 과거에 핸드벨과이어의 대원이었던 모든 이들도 참여하여 찬양할 계획이다.

우리 교회 핸드벨과이어의 연주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편곡이 된 악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편곡을 맡아 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핸드벨에 관심이 있는 등록교인인 누구나 핸드벨 대원으로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무개가 많지 않기는 큰 벨을 다루 줄 수 있는 남성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순수함을 들려 주는 맑은 벨소리같이 우리도 복음 안에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거듭나 세로위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 수 있도록 주춧다. (글/박주영 기자)

교 회 소 식

※ 알림

1. 제4차 학술 및 세례식 안내 / 학술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 받은 성도는 25일(주일)까지 교구담당 구역자에게 신청하고, 아래 일정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11월 11일(주일) 15:00-16:50, 11월 8일(주일) 15:00-15:50
· 문답: 11월 8일(주일) 16:00-16:50, 2교구별 장소
· 교육장소: 교육관 314호, 307호, 310호
· 학습, 세례: 11월 15일(주일) 찬양대에서, 분당
· 유아세례: 11월 15일(주일) 15:00, 갈릴릴루
2. 장년부 특강 / 18일(나눔 주일) 12:30, 교육관 314호
· 주제: 50대 성도의 시대적 사명 · 강사: 김재철 목사
3. 6교구 초청전도집회 / 17일(토) 17:00, 만나홀

※ 모임

1. 장로 회례세끼기도회 / 13일(화) 세끼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회례기도회 및 성경공부 / 12일(월) 세끼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갈릴릴루
4. 전도위원회 회례회 / 18일(나눔 주일) 15:00, 선교관 405호
5. 분사위원회 회례회 / 오늘 15:30, 사무국 회의실
6. 건축위원회 회의 / 오늘 15:00, 사무국
7. 남전선도부 각 교구 연합회집, 부회집 회례회 / 오늘 15:00, 메디나홀
8. 학원전도회 회례회 / 오늘 12:20, 분당 지하110호
9.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15일(목) 세끼기도 후, 성심인전도회실
10. 경찰전도회 회례회 / 오늘 15:00, 관현홀
11. 교육연구소 회례회 / 14일(수) 1부 예배 후, 교육연구소실
12. 출판회 회의 / 오늘 15:30, 선교관 303호
13. 컨서회 제2차 회례회 / 14일(수) 1부 예배 후, 사무부실

※ 남전선도회

1. 바 울 1 / 17일(토) 19:00, 제2주마다
2. 바 울 4 / 17일(토) 18:00, 정동식 장로 사무실 (561-1426, 부부무반)
3. 바 울 14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1호
4. 베드로 1 / 17일(토) 19:00, 김장경 집사처(3453-0627)
5. 베드로 12 / 17일(토) 17:00, 테레
6. 베드로 14 / 17일(토) 15:00, 안양전 교구부지 (회화재 목재: 679-8204-5)
7. 베드로 16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8. 오 한 6 / 17일(토) 17:00-21:00, 관현홀
9. 한 나 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10. 한 나 4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11. 한 나 5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12. 한 나 6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13. 한 나 7 / 15일(목) 영성훈련 후, 충천기도원
14. 한 나 8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05호
15. 한 나 9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4호
16. 한 나 10 / 오늘 교구모임 후, 분당 2층 나눔 살
17. 한 나 1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
18. 한 나 14 / 오늘 교구모임 후, 만나홀
19. 한 나 15 / 오늘 교구모임 후, 메디나홀
20. 한 나 16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1. 한 나 17 / 오늘 교구모임 후, 분당 116호
22. 예스다 4 / 13일(화) 11:00, 관현홀
23. 예스다 6 / 20일(목) 06:00, 오정희 회화재 목의(202-2278)
24. 예스다 14 / 오늘 교구모임 후, 분당 116호
25. 예스다 16 / 17일(토) 점심식사 후, 안양 자유공원
26. 루디아 4 / 15일(목) 11:00, 박미은 집사처(532-3473)
27. 루디아 9 / 16일(금) 점심식사 후, 충천기도원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74	김기복	1	루디아		1579	채인순	19	대학부		1584	김인희	19	청년2부	정희원(19)
1575	최미영	1	청년1부		1580	최매화	19	청년1부	윤미영(19)	1585	박승혜	3	대학부	
1576	임성순	15	소망부	박진숙(15)	1581	고은경	19	청년1부	서용원(12)	1586	고재숙	15	예스다	
1577	홍 의	19	고등부	임성민(13)	1582	우경희	19	청년1부	정상미(10)	1587	김 혁	15	청년부	
1578	이은우	19	대학부	류원철(19)	1583	정현명	19	청년부	장영구(1)	1588	오대화	7	베드로	

※충천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물매들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 원로목사님과 위임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분의 건강할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의 5대 목표 중 첫번째 목표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는 사실 매우 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예배시간에 지각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야기되면 공예배에 빠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베베와 핸드폰 소리가 여전히 들립니다. 심지어 졸고 있는 성도들도 눈에 띄입니다. 따라서 성령한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는 다스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는 이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교 기도회, 캠퍼스 전도, 병원 전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전도 등을 통해서 계속 응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이 교회 전체 구역적으로 계속 불이 번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열마 전투부 교회의 5대 목표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5대 목표가 각 기관과 부서로 계속 확산 적용되면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사부터 예배와 모든 기구, 선교와 전도와 봉사 등이 균형과 능력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8. 루디아 11 / 13일(화) 11:00, 김순옥 집사가게 (지하철 신당역, 235-6027)
 29. 루디아 14 / 13일(화) 11:30, 이형숙 집사처
 30. 루디아 15 / 오늘 교구모임 후, 메디나홀
 31. 루디아 17 / 13일(화) 08:30, 중앙광명 주자경(양지마을)
 32. 마리아 1 / 13일(화) 10:30, 사무부실
 33. 마리아 6 / 13일(화) 영성훈련서, 충천기도원
 34. 마리아 10 / 13일(화) 10:30, 이장재 집사(999-2235)
 35. 마리아 14 / 13일(화) 10:00, 사무부실 성도(806-7139, 806-7930)
 36. 마리아 17 / 13일(화) 10:30, 분당 중앙광명(새마을을 건너면)
- ※ 길 큰
1. 이형철(이강근) 집사, 서경자 집사의 아들, 제1교구와 복음전파사령관 서의 딸 / 17일(토) 15:00 갈릴릴루
 2. 조영현교(조규만) 집사, 김장경 집사의 아들, 제1교구와 이면전파사령관 서의 딸 / 17일(토) 14:00 복음전파의 분당
 3. 방 원교(방영호) 집사, 김장경 집사의 아들과 이영미(이영호) 집사, 김인만 권사의 딸, 제1교구 / 17일(토) 16:00 서울중앙교회
- ※ 별 세
1. 이의행 권사(황광집) 집사, 황주옥 권사 모친, 제10교구 중앙2구역 / 5일 밤세, 7일 장례
- ※ 주 소 및 전회번호 변경
1. 이명옥 장로, 현영옥 집사 / 강남구 대치동 65 영동A, 10-503, 전화: 558-2000
 2. 최혜순 집사 / 강남구 역삼동 663-2 한화빌딩 201호, 전화: 539-1462
 3. 하재명 집사, 문경희 권사 / 의정부시 용문동 건일A, 104-2406, 전화: 0351-851-0774

충천중보의 창

① 김장경 원로목사와 김장경 위임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겨울단기 선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께 맡기더라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열매 맺게 하소서.

③ 오늘 각 예배순서를 받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젊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있게 참여케 하시고, 충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⑥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합동과 고동소위 부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게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어 치료하여 주소서.

⑦ 매주 수요일 1부예배 후에 있는 지역장, 부지역장 훈련과 수요일 2부예배 후 진행되는 남성도구역훈련을 통해 교구인물들이 의제 세워져서 각 구역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⑧ 교회 5대 목표가 각 교구와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전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젊은이들의 신앙이 확신되고 분명한게 세워지면서 이들을 통해 교회의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소서.

⑨ 10월 17일에 있는 6교구 초청전도집회 위예 하나님께의 크신 관능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들어오는 은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소서.

10월 18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예배
메조소프라노 박연숙
(실로암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
· 주님의 얼굴 보라
· 알렐루야
· 거룩한 성

◆ 3부예배
소프라노 오정순
(합월무아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
·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라라
· 주님 겹신 김 나 겹신네
· 주기도



◆ 4부예배
메조소프라노 박연숙
(실로암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
· 주님의 얼굴 보라
· 알렐루야
· 거룩한 성

◆ 5부예배
찬양 및 기도회
인도 김필수 목사

- 원로목사 김인식
- 위임목사 김장경
- 부목사 김동식
이형숙 김희수 김재현 김동석 김성진 김현민 조준환 조일주 김동하 김병배 김민식 최정수 서병진 이우하
- 협동목사 윤영택 박영호 노봉진
- 신교사 이은교 안석철 김영태
- 간사 김동진
- 원로전도사 이두만
- 여전도사 최순옥 정연희 현정남 정복인 장영자 임태주 김장자 박옥진 최희배 신하영 하신동 하윤진 오정순 오인숙 김복순 현영준 박광화 박희자 김명숙 김복순 최현만
- 고장전도사 박양태
- 고복전도사 박기인 염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희 윤정식 김창종 조재민 최진우 허용구 이주환
- 신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평신도신교사 유병재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하요셉